

제1강 - 트로이아 전쟁의 발발

(1교시)

◆ 호메로스 논쟁

※ 학습목표

『일리아드』와 『오뒷세이아』를 통해 두 가지 호메로스 논쟁에 대해 알아본다.

▲ 『일리아드』와 『오뒷세이아』

호메로스의 서사시로 트로이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의 가장 정확한 문헌적 정보

■ 참고자료



호메로스 『일리아스』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2

▲ 호메로스 논쟁

■ 호메로스는 어떤 인물인가?

- 호메로스라는 이름은 서사시인들 전체를 일컫는 총칭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이름

- 『일리아드』와 『오뒷세이아』가 전체적으로 이오니아 방언으로 쓰여진 점으로 보아 그 작가는 이오니아 출신

■ 『일리아드』와 『오뒷세이아』를 한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참고자료



고대 그리스 서사 시인

호메로스 [Homer, BC 800?~BC 750]

▲ 호메로스는 실존했던 인물인가

- 호메로스는 한 사람인가

‘호메로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이름은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처럼 흔한 이름에 속한다. 그래서 호메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어떤 시인이 실존했던 것인지 아니면 호메로스라고 하는 워낙 위대한 작가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작가들이 그의 이름을 빌려서 작품을 쓴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호메로스란 이름은 서사시인 전체를 총칭했던 것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이름으로 보는 것으로 논란의 마침표가 찍힌 상태다.

▲ 기원전 5세기의 시대배경

- 소피스테스

기원전 5세기의 고대 그리스에는 소피스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영어의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져 오며 우리말로로는 퀴변론자라는 대단히 불유쾌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 원래 소피스테스는 학자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 일군의 직업교사들이었다.

-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민주정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사회는 민주정이 발달했던 사회로 아테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유시민이라면 누구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 어린이, 이방인,

노예 제외) 자유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원로원 원로가 되고 싶어 했다.

- 기원전 5세기의 투표법

기원전 5세기에는 민주정이었기 때문에 투표가 대단히 많이 시행된다. 기원전 5세기는 파피루스에 곤충에서 뽑은 잉크로 기록하던 시대로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아닌, 돌을 놓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졌다. (그리스 속담 ‘어느 편에 돌을 던질 것인가’) 것처럼 종이가 귀하고 출판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에 원로원 원로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을 전단을 통해서 알릴 수 없었다. 따라서 선거유세의 유일한 방법은 말(연설)을 통하는 것이었다.

- 아고라

아고라는 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그리스어로 광장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 이것은 18세기 유럽까지 그 전통이 이어진다. - 결혼한 성인 남성들이 시장에 나가 장을 보았다. 가사일을 분담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여성들은 대문 밖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관 장식업에 종사했던 여성들과 매춘부들을 제외한 일반적 여성들은 시장에 출입할 수 없었다.

시장에는 성인남자, 자유시민들이 모이게 되고 이곳은 장을 보는 시장과 동시에 정치토론이 벌어지는 곳이 된다. 아고라의 뜻을 광장으로까지 확장된 이유다.

- 수사술에의 욕구와 소피스테스

아고라에서 대중연설로 지지를 얻기 위해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시민들이 간절히 바랐던 교육은 연변술과 관련된 교육, 혹은 수사술에 대한 교육이었다. 따라서 이 수사술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수사술을 가르쳐주었던 교사들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특징은 그들이 모두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다. 아테네 출신은 없었고 모두 다른 폴리스에서 아테네로 건너온 교사들이었다. 그래서 구트리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철학자가 그들을 traveling teachers, 우리말로 순회교사들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이방에서 아테네로 건너와서 수사술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소피스테스라고 한다.

▲ 이오니아 출신의 방랑가인 호메로스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라고 하는 이 영웅서사시는 모두 이오니아 방언으로 쓰여져 있다. 사투리로 쓰인 문헌이기 때문에 고전그리스어로는 읽어내기가 어렵다. 이 두 권의 영웅서사시가 공히 이오니아 방언으로 쓰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이오니아 출신의 방랑가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오니아의 방랑가인이라고 보는 것이 호메로스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다.

▲ 호메로스의 활동시기는?

- 헬라니코스, 되르펠트 - 기원전 12세기
- 헤로도토스 - 기원전 9세기
- 빌라모비츠 - 기원전 7세기
- 베테 - 기원전 6세기
- 문화적, 언어사적 연구 -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작가

▲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아』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아』가 호메로스 한사람에 의해 쓰인 작품인지, 아니면 하나만 호메로스의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호메로스의 이름을 붙인 다른 작가의 작품인 것인지 논란이 있다. 이 논란은 크게 분리론이라고 하는 입장과 통합론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 분리론

- 볼프, 헤르만, 라흐만 등
 - 『일리아드』만이 호메로스의 작품이며 『오딧세이아』는 다른 작가의 아류작으로 봄
 - * 볼프 『일리아드』도 혼자 쓰지 않았다고 봄
- 언어, 문체,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
- 『일리아드』- 작품 내의 여러 부분들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느끼게 하는 점
 - 기원전 8세기 방언과 그 이전 방언이 같이 나옴

■ 통합론

- 바우어, 샤데발트, 하이예트 등
- 수백년을 두고 구전되어 내려온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 그릇에 담으려면 방대한 분량과 거대한 구상 때문에라도 매끈하게 만들기가 어렵다
- 서사시는 다른 문학장르와 구별
 - 다른 문학장르와는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스타일이나 문체의 상이함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아』가 한 사람의 작품인 이유

- 『일리아드』-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영웅
- 『오딧세이아』- 지적 탁월성을 갖춘 영웅
- 그리스 영웅의 조건 - 신체적 강인함 + 정신적 탁월함
 - 고대그리스인에게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존재(sina+ psyche)
- 작품의 시작에서 자신의 주제로 곧바로 돌입하는 특성

- 구조의 유사함

『일리아드』와 『오뒤세이아』는 작품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두 권 모두 α권에서 Ω권까지 2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24-완전수) 호메로스는 『일리아드』에서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보여주고, 『오뒤세이아』에서는 오뒤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이중저술로 보기에 는 쉽지 않다.

- 첫 구절의 유사함

『일리아드』의 첫 구절 - ‘노래하소서 여신이어, 펠레우스의 아들의 분노를.’

『오뒤세이아』의 첫 구절 - ‘들려주소서 무사의 여신이어,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았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와 같은 첫 구절의 방식은 ‘호메로스의 전통’이라 해서 헤시오도스가 그대로 물려받고 삼대비극작가인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킬로스가 그대로 물려받은 전통이다.

즉, 호메로스는 이 방대한 작품을 저술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작가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닌, 문학과 예술을 총괄하는 뮤즈 여신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여신들에게 자신의 저술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일종의 기도문적 형식인 것이다.

또한 두 권 모두 첫 구절에서 주제를 직접 밝힌다.(『일리아드』 - ‘분노’, 『오뒤세이아』 - ‘떠돌았던’(모험))

- 시간배열의 유사함

『일리아드』는 트로이아 전쟁을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전쟁중 9년의 특정사건에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오뒤세이아』도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일리아드』와 『오뒤세이아』는 형식자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까지 너무나 동일하다. 즉 문체와 시간의 상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두 작품은 백여 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리론자들도 있음) 두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분위기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고 보기에 는 의심스러울 정도다. 따라서 이 두 권의 영웅서사시 모두가 호메로스라고 하는 한명의 작가에 의해서 쓰인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1강 - 트로이아 전쟁의 발발

(2교시)

◆ 일리아드에 관하여

※ 학습목표

호메로스의 영웅서사시 『일리아드』와 황금사과이야기에 대해 알아본다.

▲ 『일리아드』에 관하여

·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문헌

· 기원전 12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트로이아 전쟁을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에 작가적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여 쓴 영웅서사시

· 총 10년의 전쟁 기간 중, 마지막 9년의 어떤 사건으로부터 헥토르의 장례 때까지의 이야기

일리아드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원전 12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트로이아 전쟁을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에 자신의 작가적 상상력을 통해서 재구성해서 쓴 영웅서사시이다.

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가 호메로스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리아드』는 비극작품이 아니며 호메로스는 비극작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리아드』는 『오뒤세이아』와 더불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기원전 5세기에 교양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침서역할을 했다. 이 두 작품을 암송하는 사람들을 교양인이라고 불렀으며 플라톤의 대화편들 속에서도 이 두 작품의 구절이 많이 인용된다. 또한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문헌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가치 또한 대단히 큰 작품이다.

▲ 트로이아 전쟁은 실재했는가

- 하인리히 슐리만의 트로이 발굴

독일인 사업가 하인리히 슐리만은 자서전에서 어릴 때부터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가장 감동 깊게 읽은 책이라고 고백한다.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유물을 발견, 발굴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1868년,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사업으로 번 막대한 자금을 터키 정부에 지불하고 트로이아 일대에 대한 독자적인 발굴권을 갖게 된다. 고고학자가 아닌 그가 이와 같은 노력을 했던 것은 순전히 『일리아드』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상상의 해저도시 아틀란티스처럼 트로이아를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곳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슐리만은 트로이 성곽을 찾아내었고 트로이아 전쟁이 인류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 터키의 트로이를 가게 되면 트로이의 성채가 1기층, 2기층, 3기층

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원전 12세기에 트로이아 전쟁을 겪은 것은 성채의 1기층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솔리만이 찾아낸 성채는 트로이아 전쟁 후 축성된 2기층 3기층에 해당하는 성채이다. 자신의 꿈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해 발굴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원하던 트로이아 성채가 아닌 그 이후에 다시 축성된 그런 성채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또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은 하인리히에 의해 트로이아 전쟁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트로이의 성채를 너무 많이 훼손시킨 장본인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 전리품을 통해 본 기원전 12세기의 그리스 문화 - 청동기에서 철기로

- 가장 귀한 전리품은 아름다운 여인들

『일리아드』에는 전투에서 뛰어난 공을 세운 영웅들이 나누어갖는 전리품들 이야기들이 나온다. 전리품들 중 가장 귀한 취급을 받은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을 전리품으로 취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 여인이나 다 전리품으로 취하진 않는다. 아름다운 여인이어야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여인은 모두 전리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한 가지 조건은 반드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여인을 상품화해서 주고 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게 된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여인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 세발 달린 가마술이 귀한 전리품이었던 까닭

기원전 12세기, 아름다운 여인이나 금은보석만큼 귀하게 여겨졌던 전리품은 세발 달린 가마술이었다. 지금 그리스나 이태리 쪽에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이 세발 달린 가마술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마술과 모양과 크기가 흡사하지만 다리가 세 개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정착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뚜막에 걸어놓으면 되는 우리 가마술과 달리 다리가 셋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로 이동문화였음을 볼 수 있다. 이 가마술이 훌륭한 전리품의 내역에 들어간 것은 기원전 12세기 그리스의 문화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행하는 단계라 철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다.

- 영화 트로이는 첫 장면부터 고증이 잘못되었다

영화 트로이의 첫 장면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전투장면이다. 그런데 그 전투장면에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등 인간의 영웅들부터 하급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쇠로 된 칼과 방패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당시는 쇠로 된 술이 귀중한 전리품이었던 시대로 모든 병사들이 쇠로 된 칼과 방패를 가졌을 리 없다. 실제 전투상황에서는 뛰어난 영웅들만 쇠칼과 쇠방패를 들고 대다수의 병사들은 염소가죽 방패라든가 청동칼을 들고 싸웠을 것이다.

▲ 『일리아드』와 트로이아 전쟁

- 『일리아드』에는 트로이 목마가 없다

트로이아 전쟁의 상징인 트로이 목마가 일리아스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호메로스의 다른 책 『오딧세이아』에서 등장) 『일리아드』는 9년의 어떤 특정한 사건부터 이야기가 시작돼 바로 며칠이후에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난다. 호메로스 『일리아드』만 가지고 트로이아 전쟁사를 하나의 줄거리로 엮어낼 수는 없다. 두 권의 호메로스의 작품과 삼대 비극작가들의 또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트로이아 전쟁의 시간적 배열을 재구성해 보자.



▲ 트로이아 전쟁의 발발원인

호메로스는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전체가 벌였던 전쟁을 트로이아 전쟁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오늘날 고고학자들의 견해는 호메로스가 전하는 전쟁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마이클 우드는 트로이아 전쟁의 발발원인을 지중해 해상무역권이라고 본다. 당시 트로이가 장악하고 있던 지중해 해상무역권을 그리스 연합군 전체가 되찾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으로 오늘날 트로이아 전쟁에 관련된 가장 정확한 분석이다.

그러나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으로가 아닌, 호메로스의 작가적 관점에서 신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트로이아 전쟁사를 풀어가도록 하자. 호메로스의 생각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실재했던 트로이 전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한다.

▲ 호메로스가 전하는 트로이아 전쟁의 발단

■ Peleus왕과 Tetis여신의 혼인 잔치에 불화의 여신 Eris가 나타나 ‘황금 사과’를 던져 놓음

■트로이아의 왕자였던 양치기 Paris가 ‘황금사과’의 주인을 가려줌.

■Paris는 Aphrodite 여신의 도움으로 Helene와 함께 트로이아로 귀국

▲ 신이 받는 벌, 인간과의 결혼

테티스 여신이 인간의 왕인 펠레우스와 혼인을 하게 된다. 불멸의 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과 혼인하는 것은 신에게는 일종의 형벌이다. 그 대표적 예는 프로메테우스가 불과 지혜를 훔치도록 만든 장본인, 에피메테우스다.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로부터 최초의 인간의 여인인 판도라와 혼인하는 형벌을 받았다.

-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보는 인간과 불멸의 존재의 결합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는 아홉명(9-고난의 상징)으로 결성된 반지원정대가 나온다. 원정대 대장인 아라곤 - 인류 최초의 원정대인 아르wen 원정대에서 따 - 은 요정과 사랑의 빠진다. 요정의 아버지인 요정의 왕은 딸의 사랑을 끝까지 반대한다. ‘너는 영원히 살터인데 너의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불멸의 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과 혼인한다는 것은 일종의 형벌이다. 사랑해서 혼인을 했는데 영원한 청춘을 사는 불멸의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일종의 벌이다.

따라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과 신의 혼인은 신에게 있어서 형벌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었던 프쉬케가 제우스에게 불사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신 에로스와 혼인한 것은 형벌이 아닌 예외적 경우에 속한다.

▲ 제우스가 두려워한 예언

테티스 여신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주어진 다. 따라서 테티스 여신이 신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그것은 신을 능가하는 또 다른 신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것은 제우스에게서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다. 제우스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세 번의 치열한 마케이아를 경험했다. 기간테스, 튀폰 등과 싸웠던 제우스가 가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들 사이의 또 다른 전쟁이다. 만약 테티스 여신이 어떤 신과 혼인을 해서 기존의 신들을 능가하는 또 다른 신이 탄생하게 된다면 그 신은 당연히 제우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이 될 것이었다.

▲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

따라서 제우스는 이와 같은 예언을 피하기 위해서 테티스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왕 펠레우스와 혼인시키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인간을 능가하는 또 다른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훗날 태어나는 아들이

『일리아드』의 주인공인 아킬레우스다. 아킬레우스는 어머니의 예언에 따라 기존의 인간을 능가하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 초대받지 못한 손님의 선물, 황금사과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혼인을 시킨 테티스 여신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성대한 혼인 잔치를 베풀고 모든 올림포스 신들과 뛰어난 인간 영웅들을 초대한다. 그러나 이 잔치에 에리스라고 하는 여신은 초대되지 않는다. 에리스는 불화의 여신이다. (무지개의 여신으로 12 주신의 심부름을 하는 이리스와 혼동하지 말 것) 초대받지 못하자 화가 난 에리스 여신은 혼인잔치 말미에 황금사과 하나를 던져 넣는다. 이 황금사과는 공교롭게도 헤라여신과 아테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 사이에 떨어진다. 불화의 싹을 던진 것이다. 황금 사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께.’

제1강 - 트로이아 전쟁의 발발

(3교시)

◆ 트로이아 전쟁의 발단

※ 학습목표

트로이아 전쟁의 발단인 파리스의 심판과 그리스 연합군 결성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 황금사과는 징표

그리스 신화에는 황금사과가 두 군데 등장한다. 첫 번째는 헤라여신이 제우스와 결혼할 때 대지의 여신 가이아로부터 혼인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것은 가이아 여신이 가졌던 자애로움과 응징이라고 하는 양면성(→가이아 가설, 부메랑 효과)을 헤라여신이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황금사과는 징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께’라는 글자가 쓰인 이 황금사과를 갖게 되면 모든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임이 천상과 지상에 선포되는 것이다.

▲ 양보할 수 없는 황금사과

- 세 여신의 지지 않는 미모

황금사과의 주인, 즉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를 아름다움의 여신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황금사과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헤라나 아테나여신이 아프로디테만큼 아름다웠을까. 헤라여신은 아름다웠다. 그 분명한 증거는 제우스의 아내라는 것이다. 제우스가 사랑을 나누었던 여신, 요정, 인간의 여인 수를 다 합하면 스물넷이다. 그 중 유일한 아내가 헤라다. 제우스가 아내로 선택한 헤라는 당연히 아름다웠을 것이다.

아테나도 아름다운 여신이었다. 아름다운 인간 여인(메두사)이 도전해 미를 겨룰 만큼 아름다웠다.

- 제우스조차 주인을 가리지 못했던 황금사과

세 여신들은 그들 사이에 떨어진 황금사과가 자신의 것이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조차도 관여하지 못했다. 게다가 제우스는 선불리 편을 들 형편이 아니다. 헤라는 자신의 아내이고 아테나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며 아프로디테 또한 자신이 한때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여신이다.

제우스는 이 황금사과의 주인을 가리는 일을 파리스에게 시키게 된다.

▲ 양치는 왕자 파리스



파리스

파리스는 트로이 바로 아래 있는 이데산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다. 그러나 그는 원래 트로이아의 왕자다. 트로이아의 성주인 프리아모스의 아들이고 트로이아 전쟁이 벌어졌을 때 트로이아군의 총사령관을 맡은 헥토르의 동생이다. 그러면 트로이아라고 하는 강성한 왕국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양치기 노릇을 하는 것일까.

- 나라를 위태롭게 할 아이

파리스를 잉태했을 때 프리아모스의 왕비 헤카베에게 신탁이 내려진다. ‘이 아이는 장차 장성하면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헤카베가 파리스를 순산하자마자 모든 왕족들은 그를 죽일 것을 권했다. 아무리 신탁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자식을 죽일 수 없었던 헤카베는 이 아이를 트로이아성 밖으로 내보내서 평생 트로이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그렇게 파리스는 목숨을 구하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이데산에 보내져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 이데산

파리스가 양을 치던 이데산은 제우스와 관련된 산이다. 제우스는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크로노스는 가이아여신이 남긴 예언 - ‘너 역시 내 자식들 중 하나에 의해서 그 권좌가 빼앗길 것이다’ - 때문에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싸서 자신의 뱃속에 삼켜버린다. 여섯째로 태어나는 제우스는 어머니 레아 여신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고 크로노스는 제우스대신 강보에 싸인 돌덩이를 삼킨다. 레아는 막내아들 제우스를 이데산에 보내 그곳에서 아말테이아(사냥을 돌보는 요정)의 보살핌을 받게 한다. 제우스는 산양젖을 먹고 자라게 된다. 그래서 제우스의 첫 번째 별명은 ‘산양젖을 먹고 자란 자’다.

▲ 파리스의 심판

파리스에게 헤르메스를 통해 제우스의 명이 전해진다. 황금 사과를 주인을 가리라는 것이다. 제우스도 가리지 못한 일을 인간이 심판할 수는 없다. 게다가 황금사과 세 여신 중 한명에게 주면 다른 두 여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무서운 상황이다. 따라서 파리스가 이것을 사양하지만 제우스의 전령신이자 달변의 신인 헤르메스의 달변에 현혹되어 그만 이 심판을 맡고 만다.



파리스의 심판

세여신이 헤라와 아프로디테, 아테나다. 공작을 신조(神鳥)로 가진 여신이 헤라여신이다. 메두사의 머리가 달려있는 아이기스라는 방패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신은 아테나다. 엄마를 따라온 아들 에로스와 함께 있는 여인은 아프로디테다. 양치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파리스는 손에 황금사과를 들고 그 주인을 심판하고 있다. 나무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은 머리에 날개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헤르메스다.

▲ 여신들이 약속한 보상들

제우스도 하지 못한 심판을 인간의 눈으로 할 수 없다. 파리스가 황금사과의 주인을 정하지 못하자 세 여신은 파리스에게 자신을 선택할 시 줄 수 있는 선물을 제시한다.

헤라여신은 동방 전체의 지배권을 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동방의 개념은 오늘날의 터키부터 인도에 이르는 땅이다. 이 전체 땅의 지배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테나 여신은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와 지혜를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 여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여인과의 사랑을 약속한다.

파리스는 이 여신들의 아름다움을 놓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제안한 대가, 보상

내역을 보고 심판한 것이다.

▲ 아프로디테를 선택한 파리스

잘 알려진 대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제안을 선택한다. 파리스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동방전체의 지배권이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마다하고 한 여인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파리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생각하면 그 선택에 수궁이 갈 것이다. 파리스는 대단히 부유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신탁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족에게서 떨어져 이데산에서 외롭게 양을 돌보며 살고 있다. 파리스는 정에 굶주려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런 파리스에게 지배권이나 승리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순수하게 인간적인 이유에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황금사과는 아프로디테에게 건네진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이제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파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여인과의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여인은 헬레네다. 헬레네는 제우스와 레다의 딸이다. 레다는 스파르타의 왕비였다. 제우스는 레다의 사랑을 얻기 위해 계속 구애하나 레다는 결혼한 여인이었으므로 아무리 상대가 제우스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우스는 사랑을 위해 노력했던 신이다. 제우스가 사랑을 위해 최초로 했던 변신은 자신의 아내 헤라 앞에서 한 변신이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뱀꾸기로 변신했다. 다나에라는 인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황금빛 소나기로 변신했다. 그리고 황소로도 변신했고 자신의 딸 아르테미스로 변신했던 적도 있다. 제우스는 레다의 사랑을 얻기 위해 백조로 변신한다. 레다가 평소에 즐겨 산책하는 산책로에 어떤 일인지 커다란 백조가 긴 목을 떨어뜨리고 가엾고 불쌍한 모습으로 있었다. 레다 왕비가 지나가다 그 가엾은 백조를 자신의 품에 보듬어 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명의 쌍둥이가 태어난다. 신화에 따르면 백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알에서 출생 - 출생의 비범함 보여줌) 그 쌍둥이 다음으로 헬레네가 태어난다.



헬레네와 메넬라오스

헬레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아프로디테는 헬레네와 파리스를 사랑으로 맺어줘야 된다. 그러나 이당시 헬레네는 이미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메넬라오스는 스파르타의 왕이다. (메넬라오스는 데릴사위가 되어 스파르타를 통치-근친혼 X) 그러나 결혼한 여인일지라도 -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혼여성’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여인은 헬레네이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여신은 파리스와 헬레네를 연결시켜줄 수밖에 없다.

▲ 구혼자들의 맹세

헬레네는 대단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결혼 전에 수많은 구혼자들이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모든 젊은 영웅과 왕이 헬레네에게 구혼했다.(유독 아킬레우스만 구혼하지 않음) 그러던 어느 날 구혼자들 중 하나였던 오뒤세우스가 구혼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이끌어낸다. 헬레네의 사랑을 얻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헬레네는 한 사람과 혼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헬레네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우리 모두는 우리 일생을 통해 헬레네의 신변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여인을 위기에서 구해주자고 한다. 오뒤세우스가 이 약속을 끌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오뒤세우스는 훗날 트로이아 전쟁에서 활약하는 영웅으로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다. 헬레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런 맹세를 이끌어낸 것이다. 오뒤세우스의 이와 같은 맹세는 유럽중세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사도정신의 효시를 보여준다.

▲ 스파르타로 간 파리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여신의 도움으로 스파르타에 오게 된다, 그는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 왕에게 지중해 건너편 트로이아 왕국의 왕자 파리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 당시 트로이아는 스파르타보다 훨씬 강대한 왕국이었다. 따라서 메넬라오스 왕은 파리스를 국빈의 자격으로 대접한다. 때마침 메넬라오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궁을 떠나야 했다. 메넬라오스는 자신에 아내 헬레네에게 왕궁을 비우는 동안 파리스를 극진히 대접하라고 당부하고 크레타로 떠난다.

▲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아로 떠나는 헬레네



파리스와 헬레네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에서 전하는 방식에 의하면 파리스는 어마어마한 선물로 헬레네의 환심을 사려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헬레네를 납치해서 자신의 왕국 트로이아로 도망간다고 한다.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비극작품들은 파리스가 일방적으로 납치한 것이 아니라 둘이 사랑하게 되어서 헬레네가 파리스와 함께 스파르타를 떠나서 트로이아로 향하는 것으로 전한다.

『일리아드』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둘이 사랑해서 떠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아프로디테가 애초에 파리스에게 제안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여인과의 사랑’이었다. 즉 헬레네와 ‘사랑’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의 여신과 동신에 사랑의 여신이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 중재하고 있는 이상 파리스와 헬레네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승을 따른다면 헬레네는 파리스에게 사랑을 느껴서 아홉 살 된 딸도 뒤로 하고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한 상태에서 파리스를 따라 파리스의 땅 트로이아로 향한다.

▲ 헬레네를 되찾기 위한 그리스 연합군의 결성

장례식에서 돌아온 메넬라오스는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이라고 트로이아를 치러 가고 싶었지만 트로이아는 스파르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다. 트로이와 맞서기 위해서는 스파르타 이외의 동족 세력들을 규합해야 한다.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해야 되는 것이다.

- 트로이아 전쟁의 의미

트로이아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헬레네라는 한 여인을 되찾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헬레네에게는 상징성이 있다. 지중해 해상무역권을 놓고 벌인 양 대륙 간의 전쟁이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정설이라면 헬레네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여인이다. 즉 그리스에 있던 가장 고귀했던 어떤 것이 트로이아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 오늘날의 역사학자와 고고학자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

- 옛 맹세를 지키는 구혼자들

메넬라오스는 결혼하기 전 구혼자들이 했던 맹세를 떠올린다. 그래서 그리스 전역에 헬레네가 트로이아의 왕자에 파리스에게 납치당했다는 파발을 보낸다. 젊은 시절 맹세에 동참했던 영웅과 왕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둘 모여든다. 그렇게 결성된 것이 그리스 연합군이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리스 연합군이 결성될 당시 -2년의 기간이 걸림- 맹세를 제안했던 오뒤세우스는 제일 먼저 오지 않고 제일 끝 무렵에 온다.